

| 월간 |

레미콘 아스콘 골재

Monthly Journal Of Remicon · Ascon & Aggregate

04

2024 Vol.335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롤러 HAMM 신차·부품·서비스 모든 것을 YK와 함께하세요!



HAMM HD+110i VV 텐덤 롤러

YK건기

1588-3806



※ YK고객 앱을 설치하면, 업무 시간 외에도
부품 구매 및 서비스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스토어에서
YK고객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에 맞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한국도로학회 그리고 한국아스팔트학회

국내 도로와 포장에 대한 학문적 산실로 자리매김한 두 학회의 수장이 바뀌었다.

유관학회이자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두 학회가 동시에 사령탑이 교체된 것은 일반적 뉴스일지라도 두 학회를 이끌 새 사령탑의 특별하고도 독특한 인연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도로학회와 한국아스팔트학회는 지난달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인덕대학교 최준성 교수(스마트건설방재학과, 58)와 서경대학교 최재순 교수(토목건축공학과, 56)를 각각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연세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인 두 신임회장은 도로에 관한 학문적 토대가 되어온 양대 학회의 지휘봉까지 동시에 맡으면서 독특한 친분관계가 두 학회의 교류와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최재순 신임 아스팔트학회장에게 인터뷰 일정을 문의하던 날 예감은 기대를 넘어 확신으로 다가왔다.

“도로학회 최준성 회장님 일정에 맞춰 같이 하시죠”

‘끈끈하고 특별한’ 동문 선후배의 만남 영문이니셜까지 똑같은 두사람의 인연

신임 최재순 한국아스팔트학회장의 제안대로 한국도로학회 최준성 회장의 인덕대학교 캠퍼스내에서 함께 진행한 인터뷰는 화창한 봄날의 오후만큼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1999년 창립한 한국도로학회가 선배학회이자 모태라면 2010년 창립한 한국아스팔트학회는 모태에서 분화한 젊은 학회로 우리나라 도로관련 전문학회내 같은 줄기의 역사와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특수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동문이자 선후배로(최준성 회장이 2년 선배다) 끌어주고 당겨주는 관계 이상의 인연을 지녔던 두 신임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점도 같고 공교롭게 이름의 영문이니셜까지 같다

“처음 이메일이란 시스템이 생겼을 때 우리 서로 누가 먼저 jschoi@을 선점할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학문적 동선이 겹치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쓰이더라고요 (웃음)”

같은 학맥을 지나온 궤적만큼이나 두 회장은 일 욕심 그리고 친화력에서 색깔이 비슷하다.

학문적 열정의 사이즈에 관해 묻자 서로가 서로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우리나라 도로분야 학문적 뿌리에 속하는 토목학회를 비

롯해 지반공학회, 지진공학회, 방재학회 등 몸담고 있는 타학회 임원겸직에 연세대 과동창회장에 교회장로까지 맡아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바쁜 일상을 사는 것으로 소문난 아스팔트학회 최재순 회장은 최준성 도로학회장의 완벽주의적 일처리 스타일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제 학생중에 최준성 회장님 아래에서 배웠던 친구가 교수님은 천사(?)에 속한다고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최준성 회장님으로부터 얼마나 바쁘고 혹독하게 배웠던지 역시나 무엇이든 곧잘 하더라고요.”

도로학회, 도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회로 아스팔트학회, 산학간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실제 1999년 한국도로학회(구.한국도로포장공학회) 창립 멤버로 지금의 도로학회가 있기까지 자타공인 수훈갑이라 할 만큼 오늘의 도로학회가 있기까지 발전의 큰 축에 최준성 회장을 빼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

국내에 도로 및 포장관련 학술단체가 전무하던 시절, 도로학회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전공 선배들을 쫓아다니며 연구논문 수집과 출간을 도맡는 학회지 편집위원부터 시작해 행사유치와 전반을 책임지는 사업이



사단 **한국도로학회**

한국도로학회

최준성 신임회장

“도로 및 교통분야 사회적 담론과 정책까지 아우를 것”



최준성 한국도로학회장

He is ...

- '90. 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99. 2 연세대학교 지반 및 도로공학 박사
- '99. 3 ~ '00. 8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책임연구원
- '00. 8 ~ 현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정교수
- '18. 3 ~ '20. 2 한국아스팔트학회 부회장
- '20. 1 ~ '21.12 대한토목학회 이사, 자문위원
- '21. 3 ~ '23. 2 한국도로학회 부회장
- '24. 2 ~ 현 한국도로학회 회장

사, 기획이사, 감사,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25년간 도로학회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최준성 신임회장은 “우리 학회가 출범당시 도로포장공학회라는 이름으로 도로의 포장분야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도로설계와 교통분야까지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학회 창립 5년후인 2004년 6월 한국도로학회로 학회명을 바꾸고 도로와 공항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교통에 관한 학문과 기술 발전을 위한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도로학회가 도로포장과 도로교통분야를 아우르면서 최근에는 미래도로라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연구해보자는 논의끝에 지난 3월 6일 우리 학회가 국토부와 함께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첫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 과제를 우리 도로학회가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올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열정이 넘치는 학자로 학회 사업분야 개척하고 확대하는 재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최준성 도로학회장은 역시나 첫 정책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듯, 회장 취임전보다 얼굴이 핏색해졌다.

“국토부와 함께 진행하는 첫행사인 만큼 잘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왕 시작했으면 다음까지 생각해 첫 스타트를 잘해야 그 다음 타자가 좀 일하기 수월하잖아요”

한뿌리에서 나온 같은 듯 다른 두 학회 서로 잘 알기에 상호 지원과 상생 가능

도로학회가 이처럼 외연확대와 연구분야범위의 확장을 꾀하면서 성장페달을 밟는 가운데 도로학회와 다른 전문화 세분화된 루트를 밟는 아스팔트학회 최재순 회장이 생각하는 학회 모델이 궁극했다.

“양적팽창이 중요한 만큼 또 그 사이에 전문성 측면에서 깊이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로연구분야의 원뿌리라 할 수 있는 토목학회가 있지만 그 이후 탄생한 유관학회들과의 사이에 고리라고 할 전문학회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아스팔트학회는 전임회장님도 늘 강조하셨듯 작지만 단단하고 더 전문적인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재순 아스팔트학회장은 도로학회가 포장에서 시작해 교통분



야까지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대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도로포장산업에 대한 연구인력과 전문가의 배출이 예전같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서로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학부를 거쳐 대학원 과정에서 도로의 포장까지 공부하고 이 분야를 선택해 전문학위를 취득하는 세대는 저와 최준성 회장님 세대에서 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도로포장 전문가를 어떻게 키워내고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학회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산업계는 도로포장에 있어 선진국형 기능성 포장이라던지 미래형 도로포장을 고민하고 기술력을 익히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데 과거처럼 이것을 학회가 앞서 주도하고 산이 따라와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술력의 주체를 학이 아닌 산업계 생태에서 직접 뛰는 산이 주도하고 학회는 산이 할 수 없는 기준 설정이나 관에 정책화를 건의하고 연결시키는 컨설팅과 서포트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우리 아스팔트학회는 산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산의 다양한 정보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전문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크죠.”

최재순 아스팔트학회장은 “이같은 방식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줄어들면서 산이 주도적인 기술개발의 축을 맡고 학이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기구로서 전문학회가 입지를 굳혀가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로학회는 그동안 학회가 손대지 못했던 영역까지 아우르며 정책분야를 발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로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술발전 방향을 주도하며 영역확장을 위한 악셀을 밟고 있는 반면, 아스팔트학회는 산업계가 학회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발빠르게 흡수하고 포장기술을 분야별로 전문화 세분화하는 깊이를 추구한다는 방향으로 노선차이를 드러냈다.

“한 나무의 같은 줄기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줄기를 뻗어내듯, 같은 학문적 토대에서 서로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경험을 해왔던 두 학회가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도로학회가 아스팔트학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서로 무엇이 아쉬운지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같은 듯 같지 않은 두 학회 수장의 환한 웃음소리처럼 도로학회와 아스팔트학회 앞에 어떤 탄탄대료가 펼쳐질지 자못 기대된다. 🍓



한국아스팔트학회

최재순 신임회장

“산업계가 학회내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마당을 펼칠 것”



최재순 한국아스팔트학회 회장

He is ...

- ’95. 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02. 2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 ’06. 3 ~ 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정교수
- ’06. 3 ~ 현 대한토목학회 부회장(2023컨벤션 조직위원장)
- ’06. 3 ~ 현 한국도로학회 이사 선출직 대의원 (도로기초위원장 13.3~19.2)
- ’06. 3 ~ 현 한국지진공학회 홍보이사
- ’13. 3 ~ 현 한국방재학회 이사 (기술위원회 위원장 14.1~20.2)
- ’18. 3 ~ 현 한국방재안전학회 이사